통계청, ‘2011 한국의 사회지표’ 발간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‘2011 한국의 사회지표’를 발간함.

- 통계청은 1979년 이후부터 매년 통계청 및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만든 통계자료를 재분류 · 가공하여 ‘한국의 사회지표’를 발간하고 있으며,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음.

■ 동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· 고령화, 외국인 비중 확대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음.

- 총인구는 2011년 4,977만 9,000명으로 나타났으며, 2030년까지 증가한 후 2031년부터 감소하여 2060년 인구성장률은 –1.0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- 저출산의 여파로 2011년 초 · 중 · 고교 학생 수가 698만 7,000명으로 줄어든 가운데 초등학생 수가 20년 전보다 34.2%나 감소한 313만 2,000명을 기록함.
-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 기준 전체 의료비 43조 6,570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의료비 비중은 31.6%로 높게 나타남.
- 한편, 2011년 장기체류 외국인 등록 인구는 전체 인구의 1.97%인 98만 2,461명으로 나타나 1990년 대비 19.8배로 급증함.

■ 또한, 꾸준한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 및 사회의 양적 · 질적 변화 등에 대한 통계도 존재함.

- 2010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은 2만 759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2011년 가구당(2인 이상 전국가구) 월평균 소득은 384만 원, 월평균 소비는 239만 3,000원으로 나타남.
- 2011년 초 · 중 · 고교 교원 수는 42만 2,000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,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7.3명으로 1991년 34.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, 학급당 평균 학생 수도 각각 24.5명, 33.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.

-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는 2010년 4,150개(2009년: 2,992개)를 기록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.
- 교통기반시설의 경우 2010년 도로연장이 10만 6,000km이고, 철도거리가 3,557km이며, 도로밀도가 1.05km/km^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, 이동전화 가입자의 경우 2011년 5,251만 명으로 1인당 1개 이상 가입한 것으로 조사됨.

(2011 한국의 사회지표, 통계청, 3/15)